

# 마을자치연금 제4호 마을 탄생

### 익산시, 망성면 하발마을서 준공식... 하반기부터 주민 17명에 연금 지급

익산에 네 번째 마을자치연금 마을이 탄생했다. 익산시가 2021년 전국 첫 마을자치연금 주자로 나선 후 3년 만에 이룬 성과다. 익산시는 23일 망성면 하발마을에서 마을자치연금 제4호 마을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조태용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장, 최중오 익산시시장, 도의원, 시의원, 익산 농촌지역 마을 대표, 하발마을 주민 등이 참석해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마을자치연금은 익산시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제도다. 계속되는 농촌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와 공동체 활력 저하, 노인 빈곤 등 농촌에 공존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와 국민연금공단이 2019년부터 함께 기획했다.

하발마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조성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기존 마을공동체 수익금을 합산해 마을자치연금 재원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오는 하반기부터 마을 노인 17명에게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익산에 네 번째 마을자치연금 마을이 탄생했다. 익산시가 2021년 전국 첫 마을자치연금 주자로 나선 후 3년 만에 이룬 성과다.

기존 성당포구마을(1호), 금성마을(2호), 두동편백마을(3호)과 동일한 방식인 만큼 안정감있게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마을자치연금은 전국을 통틀어 6개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익산시가 성당면 성당포구마을, 합일읍 금성마을, 성당면 두동편백마을, 망성면 하발마을까지 4개 마을을 보유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가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도시를 향해 한 발짝 더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시는 활발한 마을자치연금 확대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을자

치연금 전국 1호 마을인 성당포구마을에 마을자치연금 연수소를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등 마을자치연금 전국 확대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익산형 언어 프로젝트의 일환인 마을자치연금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가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도시를 향해 한 발짝 더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기록과 가까워졌어요.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지역에 대한 기록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 익산시민, 직접 지역 기록 나선다

### 시민기록활동가, 6주 양성과정 마무리... 38명에 수료증 수여

"기록과 가까워졌어요.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지역에 대한 기록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지난 6주 간의 기록활동가 양성과정을 모두 마친 익산시민들이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익산시는 23일 모현시립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시민기록활동가 양성과정'을 마무리하는 기념 자리를 마련하고 38명의 시민기록활동가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수강생들은 이 자리에서 교육과정 동안 기록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시민기록활동가 양성과정은 '시민기록'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 스스로 기록의 주체가 되는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공간을 기록하는 당신의 익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간을 기록하는 방법들에 대한 강

의가 주를 이뤘다. 수강생들은 어반스캐치, 윈손그립 등의 실습을 통해 직접 공간을 기록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특히 이번 과정을 수료한 시민기록활동가들은 올해 하반기에 예정돼있는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전시회 해설 등 민간기록물 관련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다. 생산된 기록 결과는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전시회에 전시될 예정이다.

한 수강생은 "문자로 남기는 것만이 기록인 줄 알았는데, 기록의 정의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림으로 기록을 남겨보니 기록이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성도 기획안전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여주시는 시민기록활동가들의 열정에 놀랐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익산 성장의 동력' 국가예산 확보 발로 뛰다

### 허전 부시장, 부처 단계 예산안 확정 앞두고 환경부 · 보건복지부 방문

익산시가 국가예산안 편성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 실무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허전 익산시 부시장은 23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들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허전 부시장은 우선 환경부에서 이점미 자원재활용과정을 만나 폐석산 폐기물로 인한 오염 방지와 주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사업의 필요성을 설명,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모두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는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허 부시장은 발달장애인이 편하게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내년도 국가 예산은 지자체별로 신청한 사업을 각 부처가 편성해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시는 정부 부처에 지역 핵심 사업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것을 우선 목표로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해왔다.

시는 446개 사업(총 889억 원)에 대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KTX익산역 확장·선상주차장 조성 △대조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 △산재전문병원 건립 사업 등을 50대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확보 활동을 열을 올리고 있다.

시는 이달 말 부처별 예산안이 확정

되는 만큼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 등 공조 가능한 지역 역량을 결집해 끝까지 필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허전 부시장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건의할 예정"이라며 "조급상세중시무소장을 중심으로 전북자치도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의회 · 익산시의회, 의장단 간담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 의장단과 익산시의회(의장 최중오) 의장단이 22일 군산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통합 메가시티 추진 등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최중오 의장을 비롯해 김진규 의회운영위원장 강경숙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군산시의회에서는 김영일 의장 김우민 부의장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이 참석했다.

최중오 의장은 "행정안전부에서 극심한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면서 "오늘 이 간담회가 익산과 군산의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나아가 전북특별자치



도의 발전을 불러오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익산시의회 의장단은 "새만금 3개 시·군(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더불어 익산까지 통합하는 새만금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공론화와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 중요한 만큼 친선회 단계를 밟아나가자"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보건소, 중·고교 '등굣길 금연캠페인'

군산시보건소는 관내 중·고등학교 4곳에서 담배는 노담 우리는 노담 '등굣길 금연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금강중학교를 시작으로 자양중학교, 군산고등학교, 군산상일고등학교 순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보건동아리 학생들과 교직원, 군산시 보건소가 함께 금연 선서식을 진행하고 청소년 흡연의 위험성에 대하여 홍보하였다.

캠페인 실시 학교는 군산시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노담 학교 만들기'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곳이다.

'노담 학교 만들기' 사업은 흡연의 유혹에 취약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흡연 예방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보건소는 추후에도 학교 체육대회, 축제 기간 등에 흡연 예방 부스를 운영하여 청소년 흡연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기자

### 익산시, 상반기 아동친화 도시 정책추진단 회의

익산시는 23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은 익산시에서 아동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36개 부서장이 실무단으로 구성됐다. 정책 추진에 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 셈이다.

추진단은 또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아동의회,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의 자문기구를 뒤 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의 통로를 확보했다.

이날 회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경과 보고와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성 전략, 로드맵 제시에 대한 각 부서의 제안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익산=이재춘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